

협 회 소 식

회의 및 지회소식

당협회 제5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11일 대전 유성오리마을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사육,부화,유통등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고통분담 차원의 가격을 인하하여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또 축산물 가공처리법 적용대상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리를 잡는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시행되어야 사육관련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춰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최근 오리고기 소비둔화로 오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올해 오리고기는 국내 생산량이 전년대비 30% 줄어들었고 수입량은 75%정도 줄어들어 오리고기 소비가 전년에 비해 평균 50%이상 감소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같은 가운데 10월들어 농가출하일령이 크게 지연되고 있고 가격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11월부터 새끼오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 오리가 출하되는 명년 1월에는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촉진되지 못하면 사육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육,부화,유통등 관련업계가 현재보다 가격을 인하하여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위해 소비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는한편 가공업체들은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 국산오리고기와 수입육과의 차별화 대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오리에 대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적용대상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위생적인 육류의 소비자 공급정책이 오리고기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재 국내 오리도축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법 적용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경우 오리업계가 받는 피해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오리업계의 이같은 의견이 관철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오리사육장 면세육류의 사용량이 사육

농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면세유류의 사용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행 오리고기에 대한 수입관세가 타육류에 비해 너무낮아 국산오리고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협회차원의 대책역시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전남도지회 임원간담회 및 제4차 이사회 개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 10월 1일 지회사무실에서 임원간담회를 연데 이어 10월 10일에는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육용오리 가격을 5천2백원으로 하고 새끼오리 가격은 1천원으로 조정하고 사육농가의 위탁수수료는 현행대로 1천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사육분과는 최근 육용오리 출하지연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새끼가격이 800-900원선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부화분과는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사육농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유통분과는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모의고 사육 부화 모두 고통분담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가격이 조정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0월 정기월례회의를 사육농가들이 농번기로 바쁘기 때문에 정기월례회의를 11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11월에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광주전남도지회 제5차 운영이사회 개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16일 운영이사회를 열어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 위탁사육농가 사육수수료에 대한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날 조정된 육용오리 출하가격은 현재 5천2백원에서 7백원을 인하 4천5백원으로, 새끼오리 가격은 1천원에서 1백원을 인하 9백원선으로, 위탁농가 사육수수료는 현행 1천원에서 1백원을 인하 9백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날 운영이사회는 이같은 가격조정은 육용오리 가격의 경우 최근 오리고기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사육농가의 육용오리 체화현상이 심하고 출하가격역시 크게 떨어져 출하되고 있는점을 감안, 현실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란 의견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출하가격이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단행됐다.

또 새끼오리 가격은 부화장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나 육용오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지회가격은 9백원선에 정하기로 하고 11월 소비동향을 감안해 8백원선까지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사육농가 위탁수수료는 계열주체들의 유통현실을 감안하여 9백원선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정했으나 12월초까지 유통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8백원선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부지회 월례회의 개최

당협회 중부지회(지회장:송종하)는 지난 21일 당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육용오리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에 대한 문제,오리고기 위생도압지역 확대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지역 회원 15명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참여회원들은 최근 육용오리 값이 소비위축에 따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새끼오리 가격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새끼가격을 1천원으로 하향조정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육용오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새끼오리 수급사정은 아직도 원활하지 못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하며 부화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사육농가에서 아무리 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도 당사자인 부화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서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육용오리 가격이 하락하면 머지않아 새끼공급이 포화상태가 되고 이상태가 되면 새끼가격 역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일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오리고기 위생도압지역의 확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위생도압지역의 확대는 오리고기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사육농가 유통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갖이하 고 오리를 잡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확대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르네농장에서 자체사육한 물덕에 대한 오리고기 시식이 함께 있었는데 시식한 회원들은 물덕의 오리고기가 지방이 적고 가슴살 부위가 많아 고기의 품질에 있어서는 폐킹종 오리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